

《자유인의 풍경》 출간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대안적 상상력’ 충만한 지식인의 초상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만나면 흥에 겨운 사람이 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고, 이웃을 향한 애정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사람. 《자유인의 풍경》을 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진보적 논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직되고, 심각한 표정으로 어렵고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김민웅 교수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단 몇 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그의 책을 몇 장만이라도 넘겨본 사람이라면, 따뜻하고 자유로운 사람임을 단박에 눈치챌 수 있다. 《자유인의 풍경》은 그래서 김민웅 교수의 사람됨이 속속들이 묻어나는 책이다.

김민웅 교수는 《자유인의 풍경》을 통해 “젊은 독자들에게 ‘대안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고 했다. ‘학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과 만나지 못하는, 즉 인문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시와 소설, 희곡은 물론 철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의 소재를 차용했고, 이를 일상과 버무리는 작업을 줄곧 시도했다. 버무린다고 해서 물개성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하나하나의 소재와 글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김민웅 교수만의 독특한 ‘대안적 상상력’이 《자유인의 풍경》에는 그득하다.

또 하나, “‘경계(境界)를 넘어서는 일에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산 선생 등 수많은 선각자들이 보여준 경계를 넘는 행동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제간 연구, 통섭 등 어떤 단어로 사용되건 인접 학문, 아니 하나의 끈이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학문 영역에도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도 전문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김민웅 교수는 《자유인의 풍경》에 사용된 삽화를 직접 그렸다. 애초 계획에는 없던 일이라 버거운 작업이었지만 ‘인문학 에세이’로서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결정적 사건이었다. 16세기 인문주의자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 산맥의 이쪽에서는 진리가 되는 것도 반대편의 세계에서는 오류가 될 수 있다”고 한 말을 늘 가슴에 새긴다는 김민웅 교수. 자신의 글처럼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날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시도는 그의 존재 방식 자체”임을 울곧게 실천하는 우리 시대 지식인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

